

불붙은 유가... '3차 오일쇼크' 오나

곧 150달러 ... 임계치 돌파 눈앞

물가폭등 촉발 ... 거시경제 '초비상'

기름값이 불은 큰 불이 세계 경제의 '뇌관' 쪽으로 빠르게 다가가면서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석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불을 끌 마땅한 '소화기'가 없어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할 형편이다. 유가급등은 각종 물가 전반으로 전가되면서 서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3차 오일쇼크' 설마가 현실로 = 21

일 거러낸 두바이유 현물가가 하루만에 배럴당 3달러를 오르내리는 현 추세대로라면 150달러도 멀지 않아 설마했던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적 유가전망기관들도 이런 임계치 돌파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데 동조한다. 이미 3년전 유가가 '대급등'(Super spike) 시대에 돌입할 것을 예상했던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 보고서에서

앞으로 6~24개월내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2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충격적 전망을 내놨다.

◇거시경제 전방위 충격=문제는 현재의 한국 경제상황이 한가롭게 유가 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라는 데 있다. 성장률, 국제수지, 물가 등 유가의 직접 영향을 받는 거시 지표의 악화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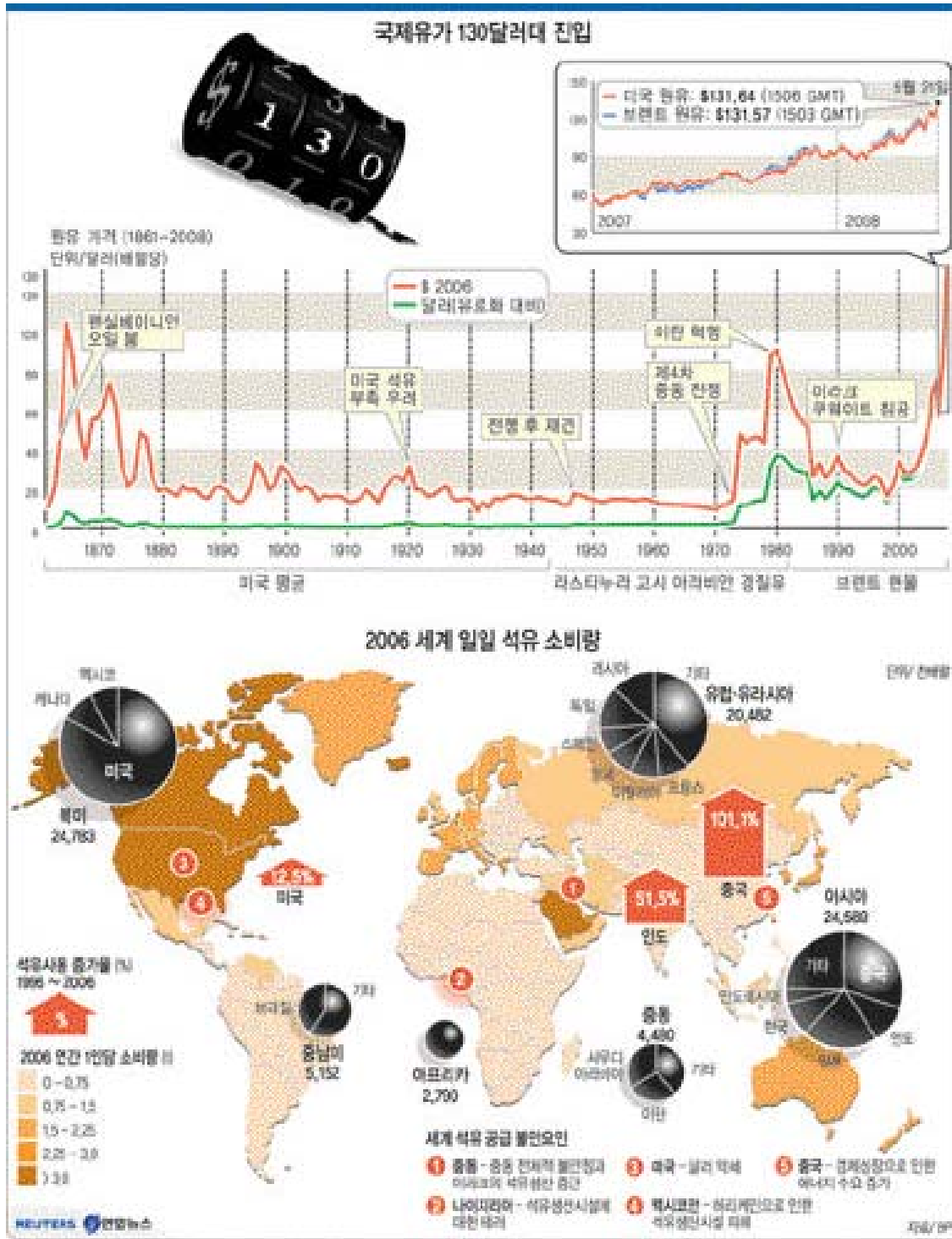
주요 투자은행 중 메릴린치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5%에서 4.8%로, 노무라가 4.9%에서 4.0%로 대폭 내려잡았으며 도이체뱅크와 씨티그룹은 3.9%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성장률 전망이 하향 일로를 걷고 있다.

불가충격은 이미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 연초부터 급등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4월에는 4.1%나 뛰어 3년 8개월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고 원재료 물가는 무려 56%나 폭등했다.

◇정책금리 인하 어려울 듯=유가급등이 성장률과 경상수지에 큰 주름을 안기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금리 인하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이달 초 발표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선을 훌쩍 넘어서자 5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

연합뉴스



ℓ 당 2000원 휘발유값 '악!'

광주·전남은 1,900원 초읽기

서울지역의 무연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이 ℓ 당 2천원을 넘겼다. 휘발유가격 추이가 예상되는 경우도 ℓ 당 1천900원대에 이르는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코스피 나홀 연속 하락

주식시장이 고유가 충격에 나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2.09포인트(0.65%) 하락한 1,835.42로 장을 마쳤다. 하지만 코스닥지수는 기관매수로 사흘만에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21.45포인트(1.16%) 내린 1,826.06으로 출발한 뒤 한때 1,810포인트까지 떨어졌으나 개인의 매수세 강화로 오후 들어 나홀이 다소 줄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1.67포인트(0.26%) 오른 647.15에 마감했다.

전기료 하반기 크게 오른다

정부, 두자릿수 인상 시사 ... 원자력 비중 대폭 확대

폭등한 발전 연료비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동결했던 전기요금에 하반기에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은 너무 늦으며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기료가 지난해 7.6%에 올랐지만 다시 5.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불가당국과의 협의와 향후 경제상황

이 변수이지만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하면 인상이 두 자릿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내달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 회를 앞두고 유류절감과 온실가스 대책의 하나로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의 비중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원전비중이 80% 선에 이르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현재 원전이 전력설비의 26%, 발전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확대와 더불어 수년래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문제에 대해서도 "원전비중 상황과 함께 볼 것"이라며 "내년에는 저장고 부지가 선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 문제가 조만간 공론화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경유가격 급등에 대해 "정제시설 보수로 중국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국제 경유가 급등의 원인이나 중국의 시설보수가 5월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아직 (석유제품의) 조세체계를 고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 향토음식 다 모였네"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전통향토음식대전' 발간 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고서를 통해 재현한 전국 8도 향토음식을 구경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통 음식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전통향토음식대전'을 발간하고 '국가전통향토음식자원포털(koreanfood.rda.go.kr)'을 통해 전통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경제성장률 1%P 하향 조정

미국중앙은행은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3개월만에 1%포인트나 대폭 하향조정했다.

또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위기와 경기침

체 위험을 막기 위해 작년 9월이후 지속해온 금리인하를 당분간 동결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21일 발표된 지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록에 따르면 미국중앙은행은 2008년 성장률 전망치를 0.3%~1.2%로 지난 1월 제시했던 1.3%~2%보다 1%포인트나 대폭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1분기 교역조건 '최악'

원자재값 급등 여파 6.7% ↓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오른 반면 수출단가는 하락하면서 올해 1·4분기 수출품 교역조건 지수가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08년 1·4분기 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에 따르면 수출품 교역조건지수(2005년=100)는 작년 말에 비해 6.7% 하락한 80.5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은이 관례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분기기준으로 가장 낮다.

수출품 교역조건지수는 한 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뜻하며, 이 지수가 80.5라는 것은 2005년에 1개를 수출하고 100개를 수입할 수 있었다면 올해 1분기에는 80.5개만 수입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 지수가 악화한 것은 수출단가는 하락한 데 반해 수입단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수출단가는 석유제품(9.8%), 경공업 제품(2.8%)이 전기 대비로 상승했으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철강제품 등 중화학 공업제품의 단가는 3.4%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1.9% 하락했다. 반면 수입단가는 원유 등 원자재와 곡물 등 소비재 중심으로 전기대비 5.2%나 뛰었다.

수출품 교역조건지수는 작년 2분기 92.2, 3분기, 90.5, 4분기 86.3 등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국민주택 임대료 싸진다

국토부, 시세의 48~68%선 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별 차등화 방안이 시범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주택 1천 858가구에 입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임대료를 시세의 48~68%선에서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일반임주자의 임대료가 시세의 57~81%인 것과 비교하면 적게는 9%포인트, 많게는 13%포인트 낮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용면적 36㎡의 경우 일반임주자는 보증금 1천140만원, 월 임대료 9만5천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증금 960만원, 월 임대료 8만원으로 입주가능하다.

또 51㎡는 일반 입주자가 보증금 2천 309만원, 월임대료 19만2천원인데 비해 기초수급자 등은 보증금 1천938만원, 월 임대료 16만2천원이다.

이같은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은 작년 12월 시흥 능곡지구에서 1천 95가구에 대해 시범 실시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국토부는 하반기에 1~2개 단지에서 추가 시범사업을 한 뒤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소득 1~4분위로 다양한 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같은 임대료를 매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한국, 선박보유량 세계 6위

작년 3천680만DWT ... 2010년엔 5위 목표

지난해 한국의 선박 보유량은 세계 6위며 2010년까지 세계 5위로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의 선박 보유량이 1998년 외항 위기 이후 세계 10위권을 뚫다가 지난해 세계 6위로 도약했다면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으로 2010년 세계 5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독일 해운전문 연구기관 ISL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한국의 선박량은 3천680만DWT로 그리스(1억7천570만DWT), 일본(1억6천70만DWT), 독일(9천450만DWT), 중국(8천310만DWT), 노르웨이(4천510만DWT)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5월 현재 국내 선사가 발주한 선박 건조량만 2천200만DWT에 달해 2010년에는 선박 보유량이 6천만DWT로 세계 5위 진입이 무난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영정보통신	[휴대폰 판매/전산업무]sk텔레콤 대리점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5/27	062-251-6972
프리머스에이전시	[주요인사] 고객만족센터(30명채용-센터확장)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28	062-383-1756
서양기계공업	품질관리/생산직/단순노무직/사내소시장	고졸/경력무관	05/28	062-960-5000	
이모레산업특약점	영업관리, 사무관리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5/28	062-512-6212
서울환경공역행사	헤니모/항공&패키지/웹디자인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8	062-225-3636
해밀테크	총무, 경리, 사무보조 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5/29	062-526-2284
광주컴퓨터	IPTV, 인터넷전화 보급업무 정규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0	062-523-6661
호원	생산관리, 품질검사(부품), 자동차부품개발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5/30	062-944-8311
에스엘텍	5톤 구내운송기사	고졸/경력1년	1800~2000	05/30	062-944-0032
빅이마트	[시안캘러리]어시스턴트 큐레이터(미대 졸업(예정)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0	062-650-2203
아시아에드	카피라이터 및 광고디자이너 경력직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5/30	062-602-2300
중우건설	현장시공기술자/현장소장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2800~3000	05/30	062-226-6245
사프점밀	금융부품제조 생산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30	062-956-4900
윤선생명보험	[영어/중국어]상담 및 관리 선생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4/12	062-526-056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